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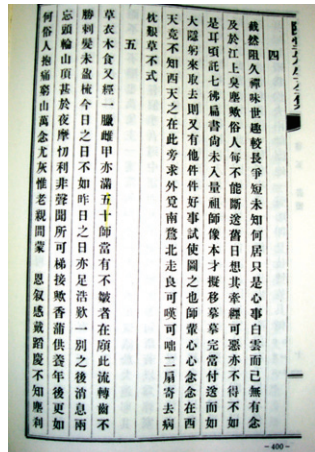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서방 정토가 여기인줄 모르고...”

추사가 초의 스님에게 보낸 짧은 편지 글에는 그들이 나누는 진솔한 우정 이외에도 초의와 관련된 직간접 정보를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여초의(與草衣)4신(信)>이 바로 그런 편지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초의가 지리산 칠불암에서 금담스님(1765~1848)에게 서상수계를 받은 후, 추사에게 ‘칠불(七佛)’이란 현판 글씨를 부탁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 추사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截然阻久 禪味世趣較長爭短 未知何居 但是心事白雲而已 無有念及於江上真塵歇 俗人每不能斷送舊日想 其牽纏可惡 亦不得不如是耳 頃託七佛扁書 尚未入量 祖師像本 才擬移拳拳完當付 送而如大隱躬來取去則 又有他件好事 試使圖之也 師輩心心念念在西天 竟不知西天之在此 旁求外覓南驚北走 良可嘆可嗚 二扇寄去 病枕艱奉 不式

확연히 갈라놓은 듯, 소식이 막힌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선미와 세상맛의 길고 짧음을 비교하면 어느 곳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속이 백운처럼 자유로울 뿐이니 (스님의) 생각은 江上의 티끌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인가요. 나는 매양 옛날 보냈던 마음을 끊을 수 없으니 그 끌리고 얽힘이 싫어지기도 합니다만 또한 이와 같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七佛’ 현판 글씨를 부탁했는데 아직 어찌해야할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조사의 상은 겨우 성의를 다해 본을 떠 다 그리면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은 스님이 친히 와서 가져간다면 또한 다른 것도 좋을 일이니 도모해 보십시오. 그대들은 마음과 생각이 서방정토에 있으면서도 마침내 서방정토가 여기인 줄도 모르고,



<여초의(與草衣)4신(信)>

초의 ‘七佛’ 현판 글씨 부탁 조사상 그림 진표율사 아닐까

결에서 구하고 밖에서 찾으니 남쪽의 오리가 북쪽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로 탄식할 만하고 애석합니다. 부채 두 자루를 보냅니다. 병으로 간신히 적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추사의 이 편지는 대략 1828년 이후에 초의에게 보내진 것으로, 부채 두 자루를 보낸다는 사실을 통해 5월 단오를 전후에 쓴 것이라 추정되는데 초의는 왜 추사에게 ‘칠불(七佛)’이란 현판 글씨와 조사의 상까지 그려달라고 청했던 것일까. 추사가 말했듯이 ‘옛날 보냈던 마음을 끊을 수 없었던’ 사이가 이들의 우정이었다. 초의의 걸림이 없는 마음이야 ‘백운처럼 자유로울 뿐이니 강상에 사는 나(추사)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인가’ 라는

투정어린 해학은 무봉(無縫)의 유쾌함이 묻어난다. ‘칠불’ 현판 글씨를 부탁했는데, 아직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추사의 뜻은 조심스럽게 부탁한 초의의 마음이나 추사의 진중함이 함께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겠다.

특히 초의에게 서상수계를 이어 준 대은 스님(1780~1841)에 대한 추사의 언급이 주목된다. 대은은 도갑사 스님으로, 1826년 7월 15일 해제 후, 스승 금담과 칠불암 아자방에서 서원수계를 하고, 7일간 기도하던 중, 그의 정수리로 상서로운 빛이 쏟아졌던 인물, 스승 금담장로는 이를 목격한 후, 그를 전법사로 삼아 보살계와 비구계를 받는 용단을 내린다. 이로부터 환성 스님(1664~1729)이후 끊어진 율맥은 대은-금담-초의로 이어졌다. 실제 초의가 칠불암에 간 사실은 <대진전> 후발에 ‘무자(1828년) 곡우절, 방장산칠불암원에 스승을 따라갔다’고 한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당시 그는 이곳에서 <만보전서>를 등초하여 차의 이론을 정립하는 초석을 다졌다. 후일 그가 ‘초의차’의 완성이나 <동다송>의 이론적 배경은 이로부터 구축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율학의 조사 상을 추사에게 부탁한 것이 눈에 띈다. 한국 불교의 자서수계 전통이 진표율사에게 의해 확산되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초의가 부탁한 조사상이란 진표율사를 이르는 것은 아닐까. 더구나 추사는 대은 스님이 직접 조사 상 초본을 가져가길 원하는 한편 다른 일도 좋을 것이란다. 진정 좋을 일이란 무엇이였을까.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1사찰 1어린이집 불교미래 바꿉니다”

새싹들의 첫 30년 자용 스님(평창 극락사 주지)

“어린이 포교는 우리 불교의 미래입니다. 출가자들이 감소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장기적인 어린이 포교를 통해서 불자를 양성하고 또 이들이 불교계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단기적인 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포교는 관심 밖의 사안이 돼 버렸는지 모르죠. 진정 불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1사찰 1어린이집·유치원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11월 28일 마포에서 평창 극락사 주지 자용 스님을 만났다. 극락사 연화 유치원, 중앙승가대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장, BBS ‘룸비니 동산’ MC 등을 맡으며 어린이 포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자용 스님. 30년 동안 어린이 포교를 통해 새싹 불자를 길러내고 있는 스님은 불교계 불모지라 불리는 어린이 포교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이 법회를 만나다

선방 수행자로 살았다며 출가한 스님의 진로가 바뀐 것은 83년 서울 관음사 어린이 법회를 우연히 맡고 나서부터다. “당시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즈음 前 총무원장이셨던 석주 스님께서 우리 불교도 인재 양성을 위해 어린이 포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실 때라 한창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붐을 일으킬 때였죠. 저는 우연히 대타로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게 됐는데 반응이 컸어요. 저도 아이들의 순수하고 맑은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조계사, 약수암, 관음사, 수국사, 청수암 등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를 맡게 됐어요. 특히 수국사 어린이 법회는 150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호응이 대단했죠”

이런 스님의 포교 능력이 꽃을 피운 것은 여수여천 불교포교원에서 어린이법회를 창립하면서부터다. 스님은 어린이법회 창단을 제안 받고 여수로 내려가게 된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애들이 많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법요집을 150권 정도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400명의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매 주마다 500여 명의 아이들이 법회에 참여하면서 성황을 이루었죠”

스님은 이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이 법회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특히 매주 포교상을 선정, 친구를 데리고 오면 문화상품권 등 상을 주니 아이들은 법회오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매주 500명의 학생들이 법회로 몰려들었고 자용 스님의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된다.

이후 스님은 법회를 나온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해 주목을 받았다.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중고등학생들이 독서실로 와요. 그러면 간식을 먹고도 새벽 2시까지 공부를 시키고 5시에서 깨워 집가서 옷갈아 입고 학교에 가도록 했어요. 평균 30~40명이 독서실에 항상 입주할 수 있도록 했죠. 이렇게 하니 법회를 나오는 학생들이 1천 여명에 이를 정도로 호응이 컸어요. 3년을 애들과 동고동락했어요. 딱 3년을 그렇게 애들을 돌봐주고 고3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날 그곳을 떠났죠”

이후 스님은 전주에서 전북 불교 회관 상임 지도법사 소임을 맡게 된다. 그렇게 그곳에서 2년 여 시간을 보내고 92년 경 월정사 말사인 평창 극락사 연화유치원의 운영을 제안 받게 된다. 전라도에서 강원도까지 멀고도 먼 길을 찾아가던 스님은 극락사에 당도하고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작은 공간에 11명의 원생들이 전부인 유치원은 낡은 시설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연화유치원의 기적

“한국전쟁 이후에나 세워졌을 법한 낡은 건물이었어요. 특히 재래식 화장실에 아이 하나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교회나 천주교로 아이들이 다 흩어진 상태였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포교가 가능할까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양을 했지요. 하지만 월정사 쪽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했어요. 두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했죠. 애들 한

명이 백명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자고 결심을 했죠. 이 모두가 수행이라 생각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스님은 불사를 새롭게 시작했다. 잠잘 곳이 없어 절 아래 마을에 방을 하나 얻어 유치원 건물을 뜯어 고치고 원생을 모집했다. 그렇게 처음으로 34명의 원생을 받았고 1년 동안 식단 개선, 교사 교육 등을 통해 연화유치원은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첫 졸업생을 배출시키자 다음 해 연화 모집에서 80명 정원을 모두 채우게 되는 것은 물론 대기자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공사를 했지만 좁은 건물에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발원이 생긴 것이다.

“도저히 유치원을 다시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가설계를 해보니 8억 정도의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어 2층 짜리 건물을 짓게 됐어요. 그리고 100여명의 정원을 받게 됐죠. 여기에 원생들이 모이면서 대기자가 생기게 되고 30명의 원생을 더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스님의 포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치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다시 초·중고·법대로 이어지면서 연화유치원이 있는 극락사는 아이들로 북적이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극락사는 학생들이 목탁치고 피아노치고 천수경 독송하며 자체 법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찰이 되었다. 스님은 졸업생들의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지역 인재를 키워내는 요람이 바로 연화유치원이라고

83년부터 어린이법회 법사로 활약

여수 여천포교원 어린이법회 창립 독서실 운영 등 1천여명 학생 지도

평창 극락사 연화 유치원 운영 맡아

11명 원생에서 대기자 생길 정도 “지역인재 키우는 요람... 뿌듯해요”

BBS ‘룸비니동산’ MC 20년 활동

불교 어린이합창단 창단이 새 서원

스님은 말한다.

“평창에서 태어나 연화유치원을 나온 학생들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지역 평창고등학교를 거쳐 명문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연화유치원은 인재를 양성하는 유치원이라는 평이 날 정도로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화유치원은 지역에서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유치원이 됐고 자연스럽게 젊은 학부모들이 절에 오면서 새롭게 신도층을 형성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스님은 이 모두가 장시간 투자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교육료가 싸다는 이유로 병설유치원을 보내려고 해요. 저희는 조금 어렵더라도 병설유치원 수준에 맞춰 교육료를 책정했어요. 또한 졸업 이후에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같은 조건이면 부모들이 저희 유치원에 원생들을 보내려고 해요”

어린이 포교는 미래다

스님은 불교방송 어린이 프로그램 ‘룸비니 동산’ MC로도 유명하다. 매일 오후 5시 40분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해주는 스님의 방송은 불교방송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년 진행기간 동안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2회 한국프로듀서상 라디오인행상 등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영광 뒤에는 아픈 추억도 하나 있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평생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열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www.msjy.co.kr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1989년 5월 수국사 부처님오신날 청소년 법회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자용 스님은 ... 1986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중앙승가대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했다. 현재 평창 극락사 주지 및 관인부설 연화유지원 원장, 중앙승가대 부설 보육교사 교육원 원장, BBS 룸비니 동산 MC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은 11월 28일 BBS '룸비니 동산'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다. 바로 스님의 방송이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작비 등의 문제로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죠. 출연료를 안 받고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후 6개월 만에 방송 성격을 바꿔서 다시 복귀를 했죠. 현재 방송이 20분 밖에 안 나가요. 제 소원은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더 늘려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불교 어린이합창단을 만드는 것이 원이라고 말하는 스님은 BBS 찬불동요제를 개최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직접 창작곡을 가지고 동요제를 하는 곳이 불교계 내에서는 흔치 않잖아요. 처음에는 큰 호응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올해로 3회째를 맞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죠. 앞으로 어린이합창단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에요. 이웃 종교는 어린이 합창단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린이합창단이 생기면 아이들의 자부심도 커지고 또 이것이 포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님이 가장 보람될 때는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이 성장해 찾아올 때라고 말한다. 또 우연히 불교 행사에서 자신의 제자와 마주칠 때면 그보다 더 보람될 때가 없다고 말한다.

"보통 우리네 스님들이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꺼리는 이유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어린이 포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불자로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그것만큼 뿌듯한 때가 없어요. 한 예로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를 듣고 저희 절 여름불교학교 지도자로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요. 그런 제자들을 볼 때마다 그저 뿌듯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의 어린이포교 현실은 점점 어두워지고만 있다. 불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그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불자들의 관심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서울 내에 불교 유치원이 10개가 안 됩니다. 또 25개 교구본사 중에 유치원을 운영하는 교구본사도 10곳이 안돼요. 이처럼 어린이 포교는 모두에게 외면



무명 시절부터 극락사 학생들을 무료로 지도해 왔던 개그맨 이수근 씨는 지금도 평창 극락사의 스님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법일기

진 보살의 쓴소리

수덕사에 출가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도량에서 울력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함께 온 젊은 보살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 혹시 대불련(대학생불교연합회)활동을 하지 않으셨나요?" "아~ 네, 그런데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보살님을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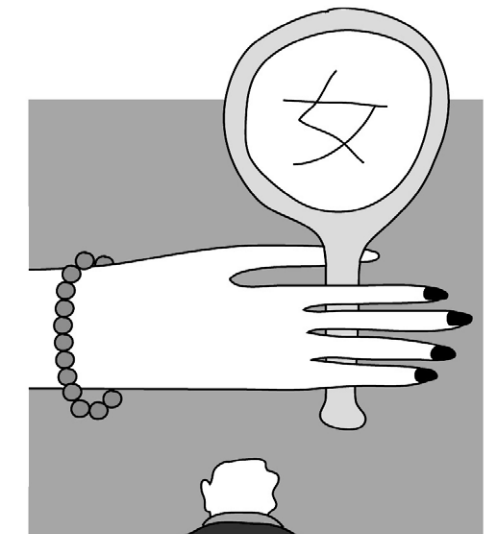
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일곱이었다. 자신도 대전에서 대불련 활동을 했는데 전국연합수련회 때 본 기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렇게 잠시 인사를 나누고 조심스러우면서도 흥분도 그렇고 어머니와 함께 온 그 보살님의 여건도 그렇고 해서 간략하게 대화를 정리하였다.

지역은 다르지만 대학시절 같이 불교활동을 했다는 것이 인연이 되어 수덕사 인근인 흥성이 고향이었던 진 보살은 그렇게 나와의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였다.

대학시절에 열심히 불교활동을 하던 대부분의 법우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불교와의 인연이 멀어지곤 했다. 거기가 동문모임을 만들어 옛 시절을 추억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할 뿐 사찰에 신도로 등록해서 신행활동을 하거나 법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런 상황을 익히 아는 내게 스님으로서 어머니와 함께 절에 꾸준히 다니는 진 보살은 매우 특별한 느낌을 주었다.

대불련 이후에도 당당하고 성실한 불자로서 법회와 기도에 참석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이후 내가 해인사 승가대학에 갔을 때와 진 보살의 남편이 지방에 멀리 직장을 얻었을 때 등 수년씩 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10여 년 전 부석사 주지소임을 맡으면서 다시 가까운 인연이 되었다.

스님은 여자를 너무 모르세요



그림·박구원

대불련 시절 도반 인연 지속돼 여성신도 마음 몰라준다며 충고 女心 알아주는 스님 되고자 노력

었다.

작은 체구에 두드러지지 않는 외모의 진 보살은 나뭇 불교와 인생에 대한 남다른 신념과 강단 이 있었다. 결혼 뒤 몸이 지병이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아들과 딸을 낳아 잘 길렀고, 시댁과 친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내곤 했다. 진 보살은 부석사에 다니면서 다른 신도들과 잘 어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였지만 때때로 오랜 인연

을 가진 주지를 향한 쓴 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진 보살이 불만스러운 말을 쏟아 놓았다. "스님은 여자를 너무 몰라요.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뜬금없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주지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여자인 신도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신도들의 마음을 모르나요?" "아니,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사연인즉, 신도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만을 잘 알아주지 않는 주지의 무심한 태도를 흉보다가 자신이 대표로 말을 전하러 온 것이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제가 앞으로는 여성들, 신도님들 마음을 잘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좋은 주지가 되려고 여성과 신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잘 맞춰보려고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스님은 여자를 모른다.'는 불만을 쉽게 떨칠 수가 없었다.

요즘은 가끔 신도들로부터 "우리 스님은 결혼도 안 해봤는데, 어쩔 그렇게 여자들 속을 잘 아신대요"라는 말을 듣곤 한다. 진보살의 충고가 이제야 효과를 보는 듯하다.

때로는 학창시절의 좋은 법우였고, 때로는 기도와 불사에 흔연히 참여하는 신심 깊은 신도였으며, 한 번씩 가슴이 서늘한 충고도 마다하지 않던 진 보살은 초임주지의 어려움을 도와준 진정한 호법보살이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간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앓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기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속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리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끼, 오추배개등 자매품다양)